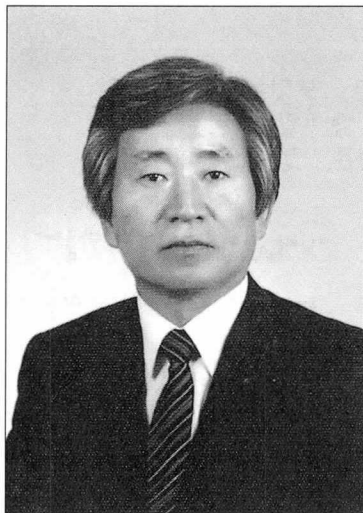


# 지식정보 시대, 실용적인 한글을

## 한글 전용의 중요성

김승곤 · 한말연구회 회장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한자를 쓰면 나라가 망한다며 간자체를 만들어쓰고 있다. 더욱이 정보와 지식의 전달면에서 한글은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다.”**

쉬지 않고 계속하여 친다면 전체적으로 40시간, 약 이틀이면 끝난다. 반면 한자 혼용으로 치면 400시간, 즉 16일이 걸려야 치는 작업이 끝나게 된다. 얼마나 정보 전달이 늦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소요시간은 한 사람이 칠 경우이나, 각 출판사에서는 컴퓨터를 치는 사람이 2~3명 내지 그 이상이 되니까 더 단축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글전용 쪽이 열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모든 교육이 한글 전용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의 모든 공문도 한글로만 쓰도록 되어 온 까닭에, 이제는 그렇게도 보수적이던 일간신문을 비롯하여, 스포츠 신문, 모든 대학신문은 물론 전문 학술서적과 소설, 잡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인사는 일본을 동양문화의 중심지라고 찬양하면서, 일본이 한자를 쓰니까 우리도 한자를 써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왜 일본이 한자를 쓰지 아니하면 아니되는지, 또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한자 배우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한자를 배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게 된다는니 갖은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한자를 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여(노신의 말), 이제는 간자체를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도 모르는, 정말 세계의 흐름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쓴이는 출판과 관련하여, 왜 한글 전용을 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 해나하면 모든 출판물은 정보의 전달, 지식의 전달을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글화회의 실험에 의하면, 국판 한문을 컴퓨터로 칠 때, 한글 전용쪽이 한자 혼용쪽보다 속도면에서 열배가 빠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400쪽의 잡지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한글로만 한쪽을 치는데 약 6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나 빨리 정보 전달이 앞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한글 전용이 유리하다. 먼저 한글 전용으로 하면 400쪽의 책 한권을 만드는데 국판 크기의 종이 200장만 하면 된다. 반면 한자 혼용으로 하면 400쪽을 목표로 만들려면 책에 소요되는 종이는 200장 이상이 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쪽수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몇천 부의 책을 만들다 보면 종이에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수도 한글 전용으로 할 때보다 많아야 하니, 인건비 또한 늘 것이다. 제본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걸리는 시간 또한 많이 걸려 한글 전용으로 만든 잡지가 시중에서 이미 다 팔릴 무렵, 한자 혼용의 잡지는 출하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정보면이나 경제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 깊이 따지고 보아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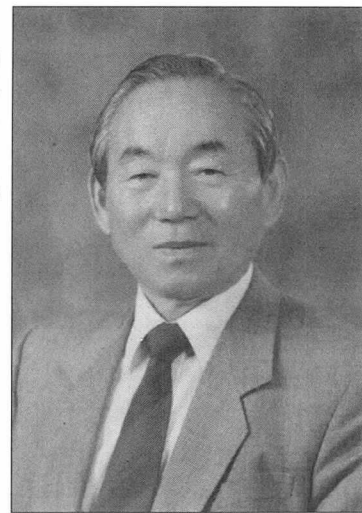
셋째로는 독자층으로 볼 때, 한글 전용으로 된 잡지는 초·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읽을 수 있어 독자의 수가 늘고, 잡지의 판매 부수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더구나 해외교포 2세들은 한글 전용으로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글 잡지가 아니면 읽어 주지 않는다.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모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도 보면,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관된 주견도 없이 한자 혼용을 하자는 그네들의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 풍부하고 성숙된 어휘력 위해

## 한자(漢字) 혼용(混用)의 중요성

李應百 · 한국어문학회 회장



**“한글만의 문자생활의 울 안에 갇혀 버려 어휘력이 빈약해지고 그나마 뜻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2천여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한자(漢字)를 통해 중국문화를 소화 흡수하고, 한자(漢字)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축적하여 오늘날 국어사전 수록 어휘(語彙)의 70%가 한자어(漢字語)로 되어 있고, 전문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함으로써 한자(漢字)를 못 깨친 우민(愚民)들이 일상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하도록

28자를 새로 만들었을 뿐(耳), 그것으로 모든 기록이며 학문(學問)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세종은 ①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같은 한문(漢文)을 아는 층을 대상으로 한 글은 '東海 六龍이 느르샤'와 같이 맞바로 국한혼용(國漢混用)을 하고, ②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같이 한문도 국문도 아는 층을 대상으로 한 글은 한자(漢字)에 국문을 달았다. 그리고 ③국문만 아는 층을 대상으로 한 글은 한자(漢字)를 섞지 않는 세가지 방식을 써 자연스런 전통(傳統)을 이루었다.

그러한 결과 학문이나 중요한 문서(文書)는 한문(漢文)이나 국한 혼용을 하고, 소설이나 내간(內簡)에서는 국문만을 쓰며, 논평(論評)이나 수필(隨筆) 등은 국한 혼용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현대의 역사소설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명·지명, 기타 특수 용어에 한자를 괄호 속에 넣기로 했다.

그런데 1970년 한글 전용(專用) 교육정책 실시로 초등학교 6년간을 공교육에서 한글만을 익혀 오으로써 한자(漢字)에 대해 이질감과 거부감을 갖는 이른바 한글세대의 층이 확대됨에 따라 한자(漢字)의 필요성 자체를 생각 밖으로 내몰고, 한글만의 문자생활의 울 안에 갇혀 버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어휘력(語彙力)이 곧 국력(國力)이라는 것이 무색할 처지에 이르도록 어휘력이 빈약해지고, 그나마도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럴 것이라고 넘겨짚어 가는, 세계에 유례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령과 학력(學歷)에 따라 성숙된 어휘를

구사할 줄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편지 등 글에 역력하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풍부한 어휘력(語彙力)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 써야 하는데, 그 어휘 보유량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윤기(潤氣) 있는 글이 써이질 리 없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자(漢字)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효율적으로 섞어 써왔는데, 미로통 한글만으로 문질러 가다니 표의문자인 한자(漢字)의 표음화로 모래알을 뿌려놓은 듯한 산만한 문면(文面)의 답답증을 느끼게 된다.

요새는 뜻이 전연 안 통하거나 잘못 읽히기 쉬운 경우에 한자(漢字)를 괄호 속에 넣을 뿐, 문면(文面)의 시각화는 염두(念頭)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글의 중심어구로 돼 있는 한자어(漢字語)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말, 가령 '학교(學校)'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문장의 중심축이 되어 뜻의 집약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 2백자 원고지 2줄에 2자짜리 한자어 하나씩, 최소한 5%만이라도 한자(漢字) 표기를 하되 인명·지명이나 특수 용어는 명심해서 한자(漢字) 표기를 하면 문면의 시각성(視覺性)이 훨씬 돋보여 내용 이해가 분명하고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한글을 한자(漢字)로 전환할 때 시간이 걸리는 불편이 손쉽게 되도록 일본의 예처럼 정부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